

새 책

▶ **킬링필드, 어느 캄보디아 딸의 기억**
(로웅 웅 지음, 이승숙 외 옮김)=캄보디아 곳곳에는 20세기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라 불리는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가 드리워져 있다. 킬링필드에서 살아난 캄보디아인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에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실과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세밀하게 그려낸 회고록이다. **평화출판**은 책, 1만5800원.

▶ **의열단, 항일의 불꽃**(김삼웅 지음)·1919년 11월 10일,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 등 조선의 열혈청년 13명이 항일독립운동을 결사해 의열단을 창단한 지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의열단은 창단 후 10년 동안 크고 작은 34번의 의열투쟁을 일으켰다. 김원봉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창단에서부터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로 이어지는 의열단의 역사를 들려준다. 두레, 1만8000원,

▶ **나의 삶이라는 책 (알렉산다르 헤몬 지음, 이동교 옮김)** = 사라예보에서 태어나 문화 잡지 편집자로 일하던 저자는 고국에 내전이 발발해 우연히 방문한 미국에 발이 묶인다. 난민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유명 잡지에 산문을 발표하면서 평단의 호응을 얻고 세로문 삶에 적응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격찬한 보스니아 출신 미국 작가의 첫 에세이집이다. 은행나무, 1만3500원.

▶ **꿀짜기에 잠든 자(정한 지음)**=저자는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의 빈 공백에 상상력을 채워 비틀스의 존 레논과 혁명이 제 개바라, 작가 엘리야스 카네티를 한자리에 불러모은다. 세계사를 뒤흔든 격전과 각자의 고통 속에서 작가, 혁명가, 음악가 세 사람이 이 마흔한 숙명을 탐색한다. 올해 중단 36년을 맞은 작가의 열일곱번째 작품이다. 문학동네, 1만3000원.

▶빅데이터 소사이머티(마크 듀겐
와 지음, 김성희 옮김) = 뉴욕타임스 보
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약 150개가 넘
는 외부 파트너 회사에 이용자들의 데
이터를 공유했다. 개인 신상뿐만 아니
라 사소한 취향과 사생활까지 수많은
타인에게 공개되고 감시당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책은 디지털 혁명이 미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약
속은 큰 대가야 파르다냐고 경고한다. 부키. 1만5000원.

▶ 와일드 로봇의 탈출(피터 브라운 지음, 엄혜숙 옮김) = 비행선에 실려 야생의 섬을 떠났던 로빈은 로봇 공장에 도착하고 수리를 받기 위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장을 했듯이 공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진짜 모습을 감춘다. 와일드 로봇이 자유를 꿈꾸며 모험을 떠나는 감동 탈출기이다. 저 북이북스, 1만4800원.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서훈받지 못한 영웅들... 그들의 후손은

정상규의 '독립운동 맞습니다'

경찰 문형순 등 사연 절절
후손들 대부분 기초수급자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9년 1월 모슬포경찰서장에 이어 같은 해 10월 성산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문형순 서장은 1950년 8월 계엄사령부의 총살 명령에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고 서명하고 거부했다. 전시 하극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명령 거부 행위로 총 295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전국을 휩쓸고 에비검속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성산포경찰서 관할구역 희생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6명에 그쳤다.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일제와 싸웠던 독립군 출신의 문형순이 광복 후 군경 요직을 차지한 일본군 출신들에게 호락호락했을까.

1919년 3월 신흥무관학교 속성
과를 졸업한 문형순은 지청천의
서로군정서에 편입돼 활동하다

1920년 일제의 간도 토벌 당시 위기를 맞았다. 서로군정서군은 토벌을 피해 남만주 방면으로 이동한 뒤 1920년 9월 백두산 방면으로 건너갔으며, 각자진 부대에 참가해 1920년 10월 청산리대첩 승리에 공헌했다. 청산리대첩에 참가한 그는 이후 고려혁명군 해체 후에는 작가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시 신민부에 이어 국민부 소속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는 만주사변 이후 하북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이어가다 광복을 맞아 1947년 경위(제주청 기동경비대장)로 경계에 임명됐다.

의로운 독립군 출신 경찰로 군대와도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여 '문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1953년 퇴직한 뒤에는 쌀 배급소와 극장 직원 등의 일을 전전하다 1966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



인 친일경찰 노덕술이 6·25 전쟁
영웅으로 둔갑해 국가보훈처로부
터 무궁훈장을 받았지만 문형순은
제주보훈청 등이 여러 차례 독립
운동가 서훈을 신청해도 실현되지
않았다. 후손이 끊겨 건국훈장을
대신 받을 직계도 없다.

저자는 지난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 514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이 책 '독립운동 맞습니다'를 펴냈다. 평균 연령 70대인 이들이 전하는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를 잊지 마세요”였다. 정삼규 지음. 아틀리에 북스. 1만6000원. 표정준기자

표성준기자



지난 1월 4·3수형인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 이후 재심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주목할 판결 다시 읽기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조차 없었지만 법원은 당시 군인들이 실질적인 사법권을 행사한 만큼 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본 자료’와 ‘내가 들은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증언했을 뿐이다. 판사의 질문이 끊어질 때마다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법정에 섰던 김종진 전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의 말이다. 그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여겨지던 재심 사건이 끝내 무죄를 받은 ‘역사적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 울며타이치 않고 실체적 진실을 따를 결과라며 담담 변론했다. 호사만이 아니라 제갈장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4·3생존수형자 재심 무죄 등
지난 5년간의 법원 판결 비평
그들만의 판결 공론 장으로

사법감시센터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은 낙태죄
위헌 결정(2019)에서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2015)까
지 30여 건이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성과 괴리된 판결, 이를 반대로 인권 수호 기
관으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볼 수
있다. 사법감시센터는 유무죄 결과와 여론 동향에 머무르
지 않고 2016년 11월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져본 결정처
리 다른 역사를 가경해보는 방식 등으로 여러 필자를 참
여시켜 판결 비평을 써내려갔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변호사는 주권자 누구든 판결문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결 비평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의 글'에서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비로소 요격과 경력을 쫓기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북룸바. 1만4500원. 진선희기자

진선희기자

야만의 시대, 온 몸으로 비극 견딘 여성들

공선옥 신작 소설집 '은주의 영화'

3년 전 5월 어느 날, 공선욱 작가가
 한라도서관에서 열린 제주한국지역
 도서전 강연 콘서트에 초청된 일이
 있다. 같은 날, 광주에서 온 사회자
 가 5·18 이야기 꺼냈다. 마침 그 날
 이 전남도청에 끝까지 남아 계엄군
 에 맞섰던 마지막 시민군이 희생된
 날이라며 그 기억을 나눴다. 제주의
 4·3처럼, 5·18 역시 5월 18일 그
 하루에만 닮아있는 게 아닌란 결
 는졌던 순간이었다.

공선옥 작가가 2010년부터 발표한 8편을 묶어 12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설집 '은주의 영화'에도 5월이 있다. 폭력의 시대였고 여성들은 그 비극을 온 몸으로 통곡했다.

표제작에는 1989년 봄에 작가가 보고 듣고 경험한 시간들이 흐른다. 체로 거른 듯 잊히지 않는 기억들로 작가는 그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다고 적었다.

상희, 철규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취업준비생 은주가 카메라를

들과 광주에서 대구탕집을 하는 이모의 시연을 담으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모는 5·18 때 어떤 죽음을 목격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은주는 이모의 말을 들으며 카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느새 카페라는 영매가 되어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 이모와 은주가 얹혀 있던 한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1989년 실제 있었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의 의문사와 연결된다.

‘은주의 영화’ 속 이모처럼 폭력에 무방비한 여성은 다른 소설에도 드러난다. ‘어머니가 병원에 간 동안’의 언니는 버스 차장,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에 소를 사주지만 소는 병들어 죽고 그 역시 병원 신세를 진다. 엄마와 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나’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 작가가 스스로를 향해 가던 무렵 ‘큰 개’, ‘작은 개’들이 곳



곳에서 ‘발광’을 했던 시절을 떠올린 ‘읍내의 개’에도 학대받는 여성들이 있다.

차취당하는 어머니의 삶이 세대가 지나도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순수한 사람',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그려낸 '염소 가족', 평생 쌍용자동차 사태를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철은 사나이' 등도 이번 창작집에 실렸다. 아반의 시대가 낡은 입김 약자의 아픔을 가로지르는 납답이 여전하다. 창비, 1만4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KAL 투어 KAL PAK

예약문의 : 제주지점

742-7217

www.KALTOUR.com

제주시청점(이색투어) 758-2000

한진관광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협찬

[포격] 대한항공BEST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라자스탄 일주[국내선 1회] 9일 ₩ 2,990,000 출발일 : 11/14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아바네라-자이푸르(1)-푸쉬카르(1)-조드푸르(1)-우다이পুর(1)-델리(1)-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초특급 호텔 이용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자이푸르 연박] 6일 ₩ 1,670,000+90달러 출발일 : 11/8, 22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파테푸르 시크리-자이푸르(2)-델리-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대한항공 중국 10대 명산 북경/백석산 4일 ₩ 731,600~ 출발일 : 9/9,12,14,20,23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북경-래윈(1)-백석산-북경(1)-북경(1)-제주(1) 선택관광 : 있음
대한항공 북경/만리장성 [랑팡 쉼라톤] 4일 ₩ 581,600~ 출발일 : 9/9,12,14,20,23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3)-제주 선택관광 : 있음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표가맹위탁의 중요항 표시, 광고사항 고지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제8호(서울시 중구창동 통목) (주)한진관광 서울지사 소로로 88(소로로) 한진빌딩 신관 2층 ● 예약보험료 영업보통보험 1억원 (기타/기타여행 상황에 따른 보충보험 5억원 가산) ● 교통사망 : 상용차기 약에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기타의 경비입니다. ● 호텔 : 1성급호텔 이상 (2인실 기준) ● 식사 : 전일정 식사제외단, 일부상등의 자유시간중 중/식대 제외 ● 최소출발인원 : 10명(숙박/일부상등을 제외) ● 교통편 : 항공(비행기/배) ● 숙박(비행기/배) : 모든이탈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 요관은 환율 및 항공요금에 의해 변동 가능 ● 여행관련 처리센터 : 02/26-5572~73 ● 안전정보단계 : ● 여행금지 : ● 필수신고 : ● 여행금지 : 4인제로 구분되며, 외국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OAG.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2020.8.6 업데이트 기준)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항공권비용, 유류비용, 항공세, 호텔비용, 관광지요금, 관광상품요금, 운송/숙박/입장료와 식재료, 기사/가이드 경비(현지 지불), 여행자보험 1억원, 현지관광입장료 등, 입장료상의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된 자유여행 상품은 미적용) ● 각종 비자비용 상용가격 외 별도다름 ● 선택관광 : 선택관광에 별도의 유무는 상품의 일정 안에 표기하였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대한 국가기관 비용 또는 입장장 불이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당사는 책임 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